그 사람 지금은

(45) '한국 춤 명인' 이매방 선생 〈하〉

"요즘 우리 것 지키려는 노력 너무 부족해"

"팔자인 게지, 춤을 추라고 태어난 팔자말이야."

춤을 추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지만 이매방 선생은 꾸밈없이 간단히 말한다.

예술 분야 거장이나 대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직업이나 활동을 철학적인 말들로 치장하기 일쑤지만 그는 달랐다.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춤이 좋았고, 그냥 숙명적으로 춤을 추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춤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졌다는 것이다.

이 옹은 서너 살 때 곧잘 누나들 치마를 입고 경대 앞에서 춤을 췄다.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뭐가 되려고 그러는 지 모르겠다며 역정을 냈고, 그럴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이때 쯤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진도 출신 목포 권번(국악원. 기생들의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곳)의 권번장인 함국향씨가 춤추던 그의 모습을 보고 "예쁘장하게 생긴 게 권번에 입학시켜 춤이나 노래를 가르치면 성공하겠다"며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7살 때 부터 목포 권번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대조 선생에게 승무를, 박영구 선생에게서 승무북, 이창조 선생으로부터 검무를 배워 춤의 바탕을 닦았다.

권번에서 7개월 정도 춤을 배우다가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만주 대련으로 갔다. 큰 형님이 그곳에서 영업용 택시 3대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소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방학 때만 되면 목포 권번에 내려와 춤을 배웠다.

7살때부터 목포 권번에서 춤 시작

중학생 시절 임방울 선생 무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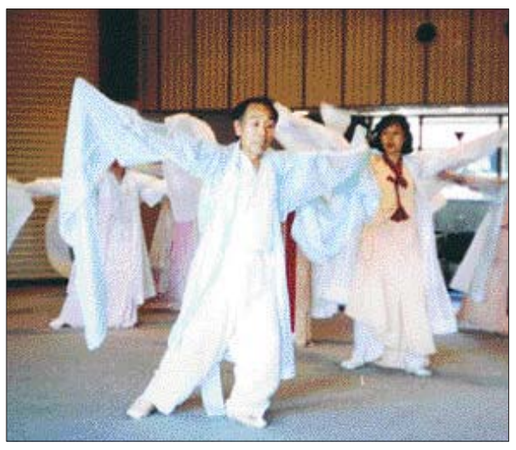
그러던 중 소학교 4학년때 중국 북경에 살던 누나 집에 놀러갔다가 매형의 도움으로 중국의 세계적인 경극 배우 '매란방'에게 춤을 배우는 행운을 얻었다. 이 같은 인연으로 그는 우리 장단과 전통 검무에 매란방으로부터 배운 칼춤을 융합해 '장검무'를 창작하게 된다.

춤꾼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그는 1985년 이규태라는 본명을 매란방의 매와 방을 따서 이매방으로 개명했다.

소학교 5학년 때는 가정 형편이 나아져 다시 목포로 이사를 왔다. 이후 중학교 때 까지 목포 권번에서 춤을 배우던 그는 중학교 3학년때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선다.

당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던 임방울 선생의 '명인명창대회'가 바로 그 무대다. 목포 역 앞 무대에서 열리던 이 공연에 갑자기 승무를 출 사람이 없어지자 그가 대타로 춤을 추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승무'의 일인자다. 승무는 보기와 달리 모든 춤의 기본이자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춤이다. 긴 장삼을 손과 어깨로 젖히고 뒤엎는 움직임에 장단이 여섯 번 변한다. 이매방 승무의 특징으로는 정확한 발디딤, 현란한 장삼놀음, 가슴을 뒤흔드는 북놀음을 꼽는다. 또한 살풀이춤은 신비함과 비장미를 함께 갖춘 춤사위로 단아



'목포 이매방 춤 전수관'에서 제자들에게 승무를 가르치고 있는 이매방.

약 력

▲1927년 목포 출생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1996년)
▲용인대 무용학과 교수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21세기 문화예술진흥회 고문

한 멋과 정한을 풀어내 이매방 춤의 대명사로 불린다. 이밖에 경기 무속 장단에 맞춰 새롭게 안무한 기원무, 호남 기방 예술의 정통을 이어 애잔하면서도 교태어린 여성적 아름다움이 부각돼 있는 입춤, 선비의 내면세계를 춤사위로 표출시킨 남성적 기품의 사풍정감 등도 그가 창작한 전통춤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춤은 우리 춤의 원형을 오롯이 간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의 보유자이고, 여러 개의 북을 늘어놓고 추는 북춤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춤의 스승이기도 하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 내한공연을 했던 20세기 최고의 발레리나 마고트 폰테인이 그의 승무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일화는 무용계에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예전에는 남자가 춤춘다고 하니까 별별 소리를 다 들었지. 멸시와 천대,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마음 고생도 말이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도 전통과 우리 것을 지키려는 노력은 너무나 부족해. 우리 것이, 전통이 날로 없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를 춤을 위해 태어난 신(神)이나 신선(舞仙)으로 추앙한다.

제자인 진유림은 그의 홈페이지에서 '이매방 선생은 하늘이 내린 춤꾼이다. 선생은 역사상 최고의 춤꾼 가운데 한 분이며, 오늘날 우리가 직접 대할 수 있는 최고의 명무(名舞)이기도 하다'라고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이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이지만 위암 수술 이후 위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단 무대에 오르면 20분 정도 공연하던 승무는 10분, 17분 하던 살풀이춤은 8분 정도로 줄였다.

그의 걱정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다. 전통이, 전통 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춤 원형 그대로 간직 안되면

얼마 안있어 사라지고 말거야"

"전통 춤은 반드시 본래의 모습을 간직해야돼. 전통 춤을 제대로 모르고 추면 우리 춤은 얼마 안가 사라지고 말거야. 이매방 춤은 손동작 하나라도 틀리면 안돼. 전통은 원형을 그대로 지켜야 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이 우리 춤을 발전시키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간단히 몇 년 동안 춤을 배운 뒤, 현대 무용과 접목해 발표하는 제자들을 볼 때 마다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 하려는 세태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려는 기자에게 자신이 담근 김치와 간단한 반찬 몇 가지로 저녁 밥을 차려주었다. 작별인사를 하자 차 속에서 먹으라며 주머니에 초콜릿을 가득 담아준다 그리곤 "서울 오면 또 들리게"라며 배웅해 주었다. 〈끝〉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정읍 칠보

불우헌 정극인 '상춘곡' 탄생지 후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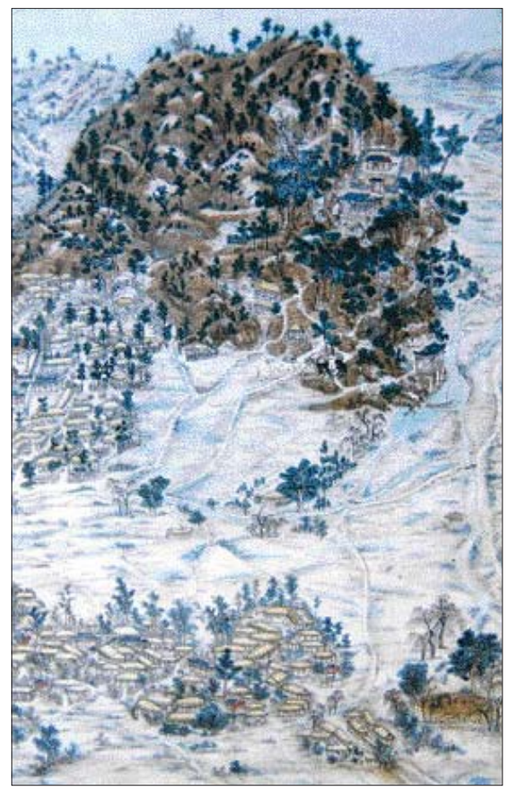
최치원이 냇물에 술잔 띄워 시 짓기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수능과 각급학교 시험이 끝나고, 대선도 종료됐다. 지난날을 성찰하고, 마음 공부를 하기위해 호남 유학과 가사(歌辭)문학의 시원을 찾아간다. 정읍 북동쪽 30리 거리로 큰 산과 넓은 들이 맞대고 있는 칠보다.

칠보산(七寶山· 472m) 줄기 성황산(110m) 품에 원촌(院村)이 안겨있다. 태산 선비문화사료관의 안성렬 선생은 무등산 증암천 계곡의 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전파됐다고 강조한다. 특히 무성서원(武城書院)과 상춘곡(賞春曲)이 주목된다.

사적 166호인 무성서원은 1868년 서원훼철폐령 때 호남에서 필암서원, 포충사와 함께 철폐를 면했다. 성황산 서쪽 능선 월연대(月延臺)에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생사당으로 지은 태산사는 1484(성종15)년 골격이 갖춰지고, 1696(숙종22)년 사액되면서 무성서원이 됐다.

무성서원에는 고운을 비롯 상춘곡을 지은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1401~1481), 송세림(宋世琳·1479~1519), 태인현감을 7년간 지냈던 신 잠(申潛·1491~1554), 정언충(鄭彦忠), 하서 김인후와 동서지간인 김약묵(1500~1558), 김관(金灌·1575~1635)이 배향돼 있다.



채용신의 칠광도에 표현된 후송정과 유상대.

고종 때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七狂圖)를 보면 최치원이 고운천 암반을 끼고 흐르는 냇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던 유상곡수(流觴曲水) 터가 눈에 띈다. 시산리 577-2번지 거북바위로 감운정(感雲亭)과 노소재(老少齋)도 있었다. 불우헌이 상춘곡을 지은 후송정 바로 앞은 소(沼)였고, 배도 떠 있다.

30번 도로를 따라 면소재지를 지나 동진강을 막 건너면 복호삼거리 동편 행단마을에 섬진강수력발전소가 있다. 1927년 옥정리에 아치형 운암제(구댐)가 구축됐고, 1931년 산외면 종산리 광나무골에 운암발전소가 준공됐다. 섬진강물을 동진강 호남평야로 보낸 남한 지역 최초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였으나, 1985년 폐쇄됐다.

1965년 완공된 섬진강 신댐은 총저수량 4억3천만톤 규모다. 1945년부터 20년 단위로 건설된 1·2·3호관을 통해, 해발 210m에서 떨어지니 화경삼폭(火鏡三瀑)이다. 4~10월 가동시켜 3만4천800㎾의 전기를 얻고, 67㎞의 용수로는 1968년 만든 계화도 간척지까지 이어진다.

1천500세대 3천명이 살고 있는 칠보에는 5년 전 한우고기 전문 식육점이 문을 열었다. 현재 20여 집이 영업하고 있으며, 산외면에는 60여 곳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산외 오공리 창하산 기슭 지내혈터에 김명관(1755~1822)이 지은 김동수 고가도 구경거리다. 〈끝〉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